

# NH The C Forum (2025.05) FAQs

## Q1. 1Q25 실적 요약

- A1. - 방영 회차 축소, 글로벌 선판매 감소, 신작 성과 부진 등으로 실적 둔화
- 장르 다양화, 오리지널 확대, 판매 지역 다각화 등 통해 매출 믹스 안정적으로 유지 중

## Q2. 2Q25 및 2025년 예상 라인업

- A2. - 2분기에는 오리지널 납품 확대 등을 통해 편성 공백 영향 최소화
- 2025년은 연간 라인업 중 60% 이상이 하반기에 집중될 예정
  - 수목 라인업 재개, 일본 프로젝트 확대, 오리지널 공급 등을 통해 연초 제시한 25편+ 계획 유효
  - 김은숙 작가 등 S/A급 크리에이터·배우 참여작 중심 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대

## Q3. 제작 효율화 전략

- A3. - 제작비 DB 기반 가이드라인 마련, 입찰 프로세스 도입, 실비 정산 확대 등 통해 제작비 절감 중
- '24년 8개 작품 → '25년 대부분 작품으로 확대 및 '26년 전체 라인업 적용하여 수익성 개선 목표

## Q4. 일본 등 글로벌 작품 진행 현황

- A4. - 6월, Amazon Prime Video 통한 <내 남편과 결혼해줘> 일본 리메이크를 시작으로,
- 하반기 TBS <하츠코이 도그즈>, Netflix Japan 오리지널 <소울 메이트> 등 순차 공개 예정
  - 검증된 K-드라마 제작 시스템을 바탕으로 일본 내 파트너십 확대 지속할 것
  - 미국은 자회사 및 Skydance 등의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20편+ 공동 기획개발 중

## Q5. Skydance 지분 인수 배경 및 기대 시너지

- A5. - 글로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, 제작 협업을 넘어 Skydance-Paramount 합병 법인을 통한 미국 내 유통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장 가능성 기대
- 하 글로벌 파트너십 구조 재정비
  - Skydance와의 협업을 통해 Apple TV+ 오리지널 <The Big Door Prize> 시즌 1·2 공동제작 성공
    - 지분 확대로 기획개발 시너지 극대화, 현지 제작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제작사로의 도약 가속화
  - 미드 평균 제작비는 핸드 대비 3~5배 수준으로 포텐셜 高 →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여 목표

## Q6. 중국 사업 재개 기대감

- A6. -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, 현지 플랫폼 등과 커뮤니케이션 지속
- 중국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
  - 한한령 해제 시, ① 미방영 구작의 잔여 매출 인식, ② 보유 구작 판매, ③ 신작 동시방영, ④ 현지 직접 제작 등 추가 수익성 확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

## Q7. 수목 중심 신인 배우 발굴 등 사업 진행 현황

- A7. - 하반기 수목 드라마 재개와 함께 신인 배우 발굴 사업 본격화
- 배우 출연료 상승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, 차세대 배우 육성 병행할 것
  - CJ ENM과 협업해 시너지 기반의 커머스 등 IP 부가 사업 연계 예정

## Q8. 숏폼 등 신사업 방향

- A8. - 프리미엄 스토리텔러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숏폼 영역 진출을 신중히 검토 중
- 국내 숏폼은 현재까지 수익성 제한적이나, 티빙 및 CJ ENM 등과 협업 가능성 열어둔 상태
  - AI 등 신규 수익원 발굴도 병행 중이며, 구체적 내용은 단계별로 공유 예정

## Q9. 중장기 타겟 영업이익률

- A9. - 미디어 산업 전반의 부진과 일부 콘텐츠의 흥행 성과 약화로 수익성 하락 경험
- 그럼에도 <눈물의 여왕>, <내 남편과 결혼해줘> 등 화제성 높았던 작품은 고 수익률 기록
  - Hit-ratio 개선, 해외 판매 확대, 제작 효율화 등 통해 중단기 영업이익률 10% 수준 회복 목표
  - 장기적으로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통해 장기적으로 20% 내외 이익률 지향

## Q10. 주주환원정책

- A10. - FCF, 영업이익률, CAPEX 등 주요 지표 타겟 달성 시 주주환원 정책 검토 예정
- 현재 FCF와 CAPEX는 안정적이나, 미디어 업황 부진으로 영업이익률 타겟 미달
  - '25년 펀더멘탈 재구축과 신사업 성과 확보를 통해 주주환원 기반 마련에 집중할 것